

# 안동문화권 □자형 뜰집 평면구성의 지역적 특성

신 치 후\*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김 성 우

(연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안동문화권, □자형 뜰집, 조선시대, 지역별 특성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택의 평면은 거주자의 생각과 이들이 모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한다. 안동문화권의 여러 시군에는 조선시대 중·상류 계층의 주택이 다수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자형 뜰집<sup>1)</sup>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전국에 분포하는 □자형 뜰집 가운데 안동문화권에 분포하는 비율이 70%로 가장 높은 것<sup>2)</sup>을 감안해 볼 때 □자형 뜰집이 이 지역 중·상류 계층 주거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자형 주거에 관련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왔다.<sup>3)</sup> 기존 연구에서는 전국에 분포하는 □

자형 주거를 소개하거나, □자형 주거의 구조와 부채를 다루었다. 또한 계층에 따른 □자형 주택의 분포를 연구하거나 안채 또는 사랑채의 기능과 역할을 다루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자형 주거가 다루어지는 연구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기존의 연구의 지역적 범위는 안동문화권 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경상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었고 연구방법은 유형분류, 타 지역과의 관계 및 구조와 부채를 다루는 연구이었다. 안동문화권 내의 □자형 뜰집의 지역별 특성에 대하여 집중된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다루려고 한다. 본 연구와 제일 가까운 것으로 김화봉의 「朝鮮時代 安東文化圈의 ‘뜰집’에 관한 研究」 연구가 있다. 안동문화권에 분포하는 뜰집을 전수 조사하여 뜰집의 구성적, 구조적, 공간적 특성을 밝혀 안동문화권 뜰집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밝혀낸 성과가

\* 교신저자, 이메일: chihoo1@naver.com

1) 안동문화권에서 □자 형태의 주택은 뜰집, □자집, □(미읍)자집, 말집, 뒷집이란 용어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형 뜰집’이라 칭한다.

2) 김화봉, 「朝鮮時代 安東文化圈의 ‘뜰집’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5쪽

3) 기존의 □자형 뜰집과 관련된 연구로는 장성준, 「안동 토계동의 주택유형에 대한 연구」(대한건축학회, 1978.4), 주남철, 『한국주택건축』(일지사, 1980), 송

인호, 「□자형 전통주거건축에 관한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2), 김홍식, 「조선후기 □자형 주택의 구조와 부채비교에 관한 연구」(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84), 최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거주에 관한 연구-계층성과 지역성의 관점에서 본 평면구성을 중심으로-」(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김화봉, 「朝鮮時代 安東文化圈의 ‘뜰집’에 관한 研究」(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등이 있다.

## 8 논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안동문화권을 구성하는 각 시군의 뜰집의 유형을 분석하여 지역별 특성을 다루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안동문화권 내에서도 각 지역별로 거주자의 특성, 자연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주택의 구성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형 뜰집의 지역별 특성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동문화권에 포함되는 8개 시군의 □자형 뜰집의 평면구성의 분석을 통하여 안동문화권 □자형 뜰집 평면구성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려한다.<sup>4)</sup> 이러한 □자형 뜰집의 지역별 특성과 함께 각 지역의 주택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수용하는 방식의 차이 정도를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 안동문화권의 각 지역 □자형 뜰집의 차별화 배경을 보다 가까이 이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자형 뜰집을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이 지역 중·상류 주택으로써의 유형적 대표성 때문이다. 그러나 □자형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는 안동문화권의 □자형 뜰집 가운데 안채와 사랑채가 서로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된 경우와 서로 직접 연결되지 않았지만 이웃하여 외형상 □자 구성이 확실한 경우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앞뒤로 나란히 배치된 두 동의 一자형 건물이 지붕 없이 벽으로만 연결되어 □자 형태를 이루는 주택은 □자형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어 제외시켰다. 이러한 방법

으로 연구대상 주택의 선정은 대부분의 자료를 기존의 문헌에서 소개된 자료 중에 본 논문의 목적에 맞는 것을 활용하였다. 그 문헌들에는 기존의 연구자료, 문화재수리보고서, 기타 조사보고서가 포함된다.<sup>5)</sup> 여기에서 찾아진 자료 가운데 중복되는 것은 가급적 원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정되었다. 이 모든 자료를 합해서 302개의 연구대상 주택이 선정되었다.

조사방법으로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간단한 약실측 조사를 실시하여 도면화하였고 훼손되거나 변형이 많이 이루어진 주택은 보고서, 실측도면 등의 문헌자료와 거주자와 면담을 통하여 가급적 원형 추적이 가능한 경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였다.<sup>6)</sup>

지역적 범위는 행정적으로 안동문화권에 속하는 안동시, 봉화군,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의 8개 시군이 해당된다. 시군들의 사이에 유사성이 강한 지역을 하나의 지역적 범위로 묶는 방식으로 지역적 특

5) -연구논문(189채)

「朝鮮時代 安東文化圈의 '뜰집'에 관한 研究」, 김화봉,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1999(185채), 「경북 영덕군 원구리 마을의 전통주택 평면 특성에 관한 연구」, 오채준,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2004 (4채)

- 문화재수리보고서(70채)

『'90 문화재수리보고서,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관리국, 1992, 『'91 문화재수리보고서,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관리국, 1992, 『'92 문화재수리보고서,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관리국, 1994, 『'93 문화재수리보고서,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관리국, 1995, 『'97 문화재수리보고서, 지방지정문화재』, 문화재청, 2000 『'98 문화재수리보고서, 도지정문화재』, 경상북도, 2002, 『'99 문화재수리보고서, 도지정문화재』, 경상북도, 2002, 『2000년도, 문화재수리보고서, 도지정문화재』, 경상북도, 2004

-조사보고서(38채)

『전통건조물보존지구 조사보고서-영풍수도리 (무섬) 마을』, 경상북도, 1988 (10채), 『제2차 농촌주거환경조사연구보고서-도면집』, 한샘, 명지대학교 한국건축문화연구소 부설, 1989.3(10채), 『2005년도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5 (18채)

6) 현장조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영주 무섬마을 현지조사를 시작으로 총 220여 일간 실시하였고 2009년 추가보완조사를 완료하였다.

4) 지역별 특성과 더불어 평면 분석에서 중요한 시대적 특성은 변수로서 다루지 않고 다음 연구로 미룬다. 지역적 특성도 의의가 있으며 연구 되어야하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성을 분류토록 하였다. 조사대상 주택 가운데 건립 년대가 가장 오래된 1430년대부터 마지막으로 건립되는 1965년대까지의 조선시대를 포함하는 기간을 시대적 범위로 정하였다.

302채의 조사대상 가운데 건립년도가 확인된 것은 233채(77%)이고 년도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69채(23%)이다. 건립년도가 확인된 주택 가운데 분포가 큰 시기는 19세기, 18세기, 17세기 순이다. 시대별 지역의 주택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시대별 지역의 주택 분포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합
안동	3	14	16	14	31	4	82 (35%)
봉화		2	6	10	19	7	44 (19%)
영덕	1	2	9	6	13	3	34 (15%)
영양		2	2	9	9	3	25 (11%)
영주		1	4	3	8	6	22 (9%)
예천	1	3	5	5	1	2	17 (7%)
의성				2	1		3 (1%)
청송				3		3	6 (3%)
합	수	5	24	42	52	82	233
	%	2	10	18	22	35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채, 안채, 사랑채의 유형을 나누어 각 유형이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연구 방법의 골격으로 하였다. 유형화는 주택의 건축적 진화단계 및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를 구분하는 차원에서 구별하기 위하여, 가장 두드러진 형식적인 차이를 우선으로 하여 구분였다. 유형 구분의 구체적 방식은 공간배치 방식을 주요 요소로 하였다. 지역별 분석에 의하여 나온 각 유형빈도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안동문화권을 구성하는 각 시·도의 □자 주택 평면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본채, 안채, 사랑채의 각각

의 분석 요소를 통계적으로 계량화하고 이를 도표화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 2. □자형 들집의 유형과 분포

### 2-1. 조사대상 지역의 지리적 및 사회적 배경

안동문화권의 지리적 범위의 문제는 지리학, 언어학, 역사학의 관점에 따라 포함되는 시군이 다소 차이가 있다.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안동문화권 학술조사보고서』에서는 안동시,군, 영주, 영풍, 봉화 등을 포함하였고<sup>7)</sup> 유증선의 「안동문화권 설정의 의의」에서는 본 조사지역 8개의 시군에 상주, 군위가 더해졌다.<sup>8)</sup> 임세권의 「역사적 변천, 경북 북부지역의 전통문화」에서는 시대적 문화적 요소에 따라 안동문화권을 세분하였다.<sup>9)</sup> 국민대학교 국사학과와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 안동문화권』에서는 안동을 중심으로 서부, 동부, 북부, 남부의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상주, 구미, 군위, 포항, 울진까지 포함시켰다.<sup>10)</sup> 안동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문화권으로서 안동문화권을 설정한다면 그것이 포함하는 지역을 확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동문화권의 영역을 북쪽으로는 소백산맥에 의해 가로막히고 동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태백산맥 마지막 자락에 의해 가로막히게 되는 지역으로, 안동시를 감

7)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안동문화권 학술조사보고서』, 성균관대학교, 1967

8) 유증선, 「안동문화권 설정의 의의」 『안동문화총서 권1』, 안동대학 안동문화연구소, 69-70쪽, 1989

9) 임세권, 『역사적 변천, 경북 북부지역의 전통문화』, 경상북도 13-15쪽, 1988. 3

10)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안동문화권』, 역사공간, 20-21쪽, 2003

## 10 논문

싸는 봉화군,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청송군, 의성군, 영덕군으로 정하였다. 영덕군의 경우 태백산맥에 의해 완전히 단절이 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영양군과 연결이 되며 이 지역 거주민들의 면담결과 영덕군을 소안동이라 부를 정도로 안동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口자형 틀집이 다수 남아있으므로 포함시켰다. (그림 1 참고)



<그림 1> 안동문화권 행정구역지도

연구 대상 주택의 건립시대에 따라 정해진 시대적인 범위는 15세기부터 20세기까지이며 이것은 결국 조선시대 전체 기간을 포함하게 된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배경으로 개창되었고 사회문화적으로 성리학적 이념을 실천하려 하였다. 이러한 실천 노력의 예로써 가례의 실행과 종법 질서의 확립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가례 실행과 종법제도는 조선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되었지만 잘 실행되지 않았다. 임진왜란(1592)과 병자호란(1636)을 겪으며 혼란스러워진 사회질서를 재편하는 방안으로 사림은 예교(禮敎)를 통해 종법적 질서를 확립하고자하였다. ‘예학의 시대’로 규정되는 17세기부터 종법질서가 확립되고 가례의 연구가 본격

화되며<sup>11)</sup> 향촌사회까지 점차적으로 확산 및 정착되기 시작한다. 그러한 정착 과정을 거친 후 조선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근대화로 인하여 종법질서와 가례와 같은 성리학적 전통문화가 약화되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주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택의 지역별 분석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적 차별화 정도의 관점에서 정리하려는 것이다.

이 시기 안동문화권에서 상류층은 성리학을 이념으로 이상사회의 건설을 추구하였던 사람들이다. 15, 16세기에는 조선사회의 지배계층인 중소지주층의 경제적, 지식적 기반이 확보되고 이들이 과거제를 통하여 생원, 진사라는 사대부의 신분적 지위를 부여받은 수가 증가함으로써 사림이라는 용어에 집단성이 더 부각되어진다.<sup>12)</sup> 특히, 15세기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해 경제적 토대가 확보된 영남지방의 사림을 영남사림파(嶺南士林派)<sup>13)</sup>라하며 안동문화권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이후 몇 차례 사화<sup>14)</sup>를 겪으며 낙향한 사림은 향반, 토반이 되어 사회,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며 향촌사회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sup>15)</sup> 예학의 시대인 17세기부터 안동문화권을 중심으로 영남예학의 계열이 활발한

11)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도서출판 삼산문화, 254-266쪽, 2003

12) 김길령, 「영남지역 불친위제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박사학위 논문, 6쪽, 2008

13) 이수진, 「영남사림과 형성의 사회적 기반」, 『민족문화연구총서』 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3쪽, 1979

14) 무오사화(1498년)는 훈구파가 영남사림을 축출한 사건이고 기묘사화(1519년)에는 중종을 옹립한 훈구대신들에 의해 사림이 축출되었다. 을미사화(1545)는 사림끼리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15) 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한국문화연구소, 35-67쪽, 1977

활동을 하고 조선후기 전까지 이들의 영향력이 정점에 이른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러한 양반뿐만 아니라 부를 축적하여 양반의 신분을 획득한 부농층이 출현하여 중·상류 계층에 변화가 나타난다. 안동문화권의 주거는 이러한 사회문화의 시대적 변화와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거주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2-2. 평면유형

유형의 구분은 나타나는 평면 분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평면구성의 차이를 우선으로 하여 구분하였다.<sup>16)</sup> 이것은 평면유형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달라지는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추정해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조사대상 □자형 뜰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서로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된 경우와 직접 연결되지 않았지만 가깝게 이웃하여 외형상 □자 구성이 확실한 경우로 나뉜다.

□자형 뜰집의 기본적 성격을 알기위하여 본채의 배치유형을 나누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본채 유형은 안채와 사랑채의 평면이 연결되어 안마당을 폐쇄적으로 감싸는 형태를 ‘결합형’이라고 하였고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지 않아 그 사이가 개방되었거나 사이를 외부 벽으로만 연결하여 □자 형태를 만드는 것을 ‘분리형’으로 보았다.(표 2. 본채-결합형, 분리형 참조)

안채는 본채의 안쪽에 배치된 건물로 안채를 구성하는 실의 배치방식에 따라 유형을 나누었다. ‘대칭형’의 기본 구성은 안대청을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 안방과 상방이 대칭으로 배치되고 각 방의 전면으로 부엌이 배치되는 경우이다. 안대청의 칸수와 마당의 폭이 같다.

안대청의 중심성이 강조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대칭형에서는 방이 수장공간인 도장방으로 분할되는 식으로 분화되기도 한다. ‘비대칭형’의 구성은 부엌이 안방의 측면에 배치되어 부엌, 안방, 안대청, 상방이 한열로 배치되는 형식이다. 안방의 긴 면과 안대청이 같은 방향으로 마당을 향하고 있어서 안대청의 칸수와 마당의 칸수는 일치하지 않으며 안대청의 중심성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안방의 긴 면 앞으로 뒷마루가 배치된다. 비대칭형은 영남지방의 민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sup>17)</sup> (표 2. 안채-대칭형, 비대칭형 참조)

사랑채는 본채의 앞면에 배치된 건물로 안채와 비교하여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먼저 본채에서 사랑채의 위치에 따라 모서리형과 비모서리형으로 나누었다. 모서리형에서는 다시 유형이 나뉘어 ‘모서리완결형’과 ‘모서리돌출형’으로 나누고<sup>18)</sup> 비모서리형에서는 본채 전면에 사랑채가 배치되는 유형을 ‘전면일자형’, 이외에 사랑채의 주요 방이 본채의 측면에 안채와 직각이 되게 배치되거나 사랑방 한 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를 ‘기타’ 유형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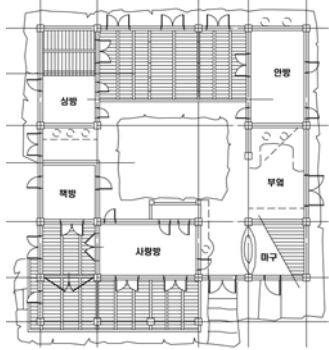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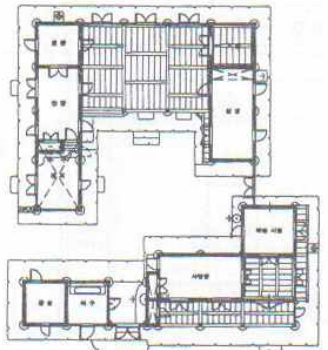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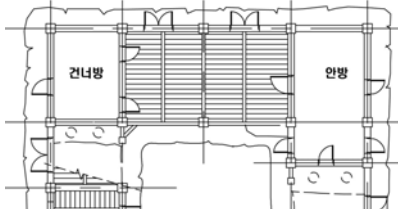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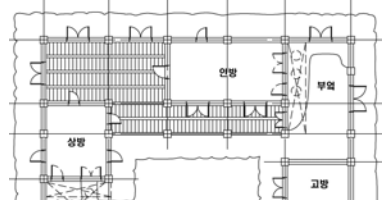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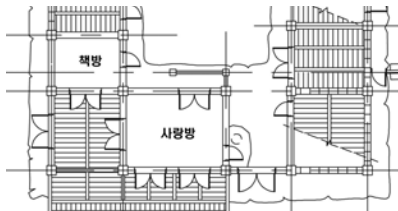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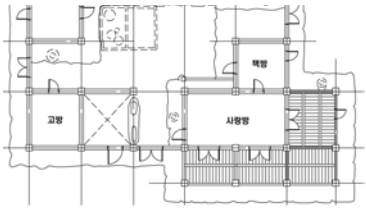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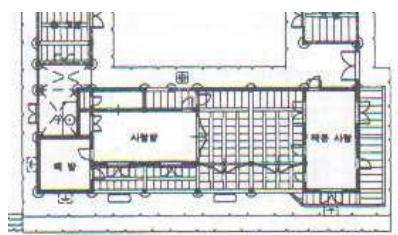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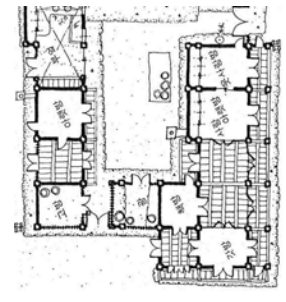
모서리완결형의 평면 구성은 모서리에 사랑마루가 배치되고 사랑방과 부속실이 사랑마루를 통하여 직교하게 연결된다. 모서리돌출형은 사랑방이 모서리에, 부속실이 사랑방의 뒤쪽으로 직접 연결되게 배치되고 사랑마루는 사랑방의 측면에 배치되어 □자 밖으로 돌출되는 형태이다. 전면일자형의 평면구성은 부엌, 사랑방, 사랑마루, 부속실이 일렬로 배치되어 안채의 비대칭형과 비슷한 구성을 보인다. 다른 유형에서 주택의 대문이 본채 전면 사랑방의 측

16) 평면 구성의 경향이 다른 것은 평면 분류에서 확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연구의 방법상 타당하고 필요하였다.

17) 윤일이,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와 김효봉의 논문에서는 중부형, 영남형으로 나누었다.

18) 사랑채 유형에서 모서리형의 비중이 70% 이상이 되고 모서리완결형과 모서리돌출형에서 공간사용의 패턴이 달라짐으로 모서리형을 세분하였다.

[표 2] 본채, 안채, 사랑채의 유형

본채		
	결합형	분리형(김화봉 전계서)
안채		
	대칭형	비대칭형
사랑채		
	모서리완결형	모서리돌출형
	모서리형	
		
전면일자형(김화봉 전계서)	기타(괴시리마을 기초자료 조사보고서)	
비모서리형		

면에 있는 것과 달리 전면일자형은 본채 측면에 대문이 생긴다. (표2. 사랑채-모서리완결형, 모서리돌출형, 전면일자형 기타 참조)

**2-3. 지역별 분포**

조사대상 주택은 각 시군별로 고르게 분포

되지 않고 주택 수의 차이가 많이 난다. 안동 문화권 시군 가운데 가장 중심에 위치한 안동이 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봉화, 영덕이 약 15%, 영양, 영주가 약 10%, 예천이 7%의 순이다. 청송이 3%, 의성이 1%로 사례가 가장 작다. 안동은 조선시대에 안동문화권의 8

개의 시군 가운데 가장 큰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주택의 수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안동시에서도 남쪽 지역에 사례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편이며, 시도 가운데에서도 안동시의 남쪽에 위치한 청송군과 의성군의 사례가 가장 적다는 것이다.<sup>19)</sup> 영덕군의 경우 태백산맥에 의해 안동문화권과 교류가 상당히 불편함에도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시군별 주택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지역별 □자형 뜰집의 수

안동	봉화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	합
115	49	45	33	27	22	3	8	302
38%	16%	15%	11%	9%	7%	1%	3%	

### 3. 지역별 □자형주택의 평면 특성

#### 3-1. 본채의 배치계획

본채의 유형 가운데 결합형이 221채(약 73%), 분리형이 81채(약 27%)로 결합형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역별 분포를 보면 영양지역이 97%, 영덕지역이 89%, 청송지역이 88%로 결합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고 영주지역 78%, 안동 및 봉화지역 65%, 예천지역 59%로 비율로 나타난다. (표 4 참조)

안동의 동쪽인 영양, 영덕, 남쪽인 청송지역에서 결합형의 분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이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유형을

19) 청송, 의성의 사례가 적은 것은 현재의 인구와 보존된 전통주택의 수가 적은 것으로 미루어보아 원래 □자형 뜰집의 수가 적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전체 □자형 주거에서 안동문화권에 70% 이상이 밀집하고 북쪽의 영동문화권에 50여호, 남으로 경주문화권에 20여호 정도만 있는 (김화봉 전게서 30쪽) 분포상황과 같이 안동문화권에서 남쪽에 위치하여 경주문화권과 근접한 의성, 청송 지역의 □자형 뜰집의 분포가 적은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것은 안동시에서도 남쪽의 분포가 적은 것과는 같은 맥락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안동의 북쪽인 영주지역이 다음을 차지한다. 안동, 봉화지역이 다음으로 비슷한 정도의 결합형 분포가 나타나고 예천지역은 결합형의 분포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다. 안동, 봉화, 예천지역이 영양, 영덕, 청송 지역보다 분리형의 분포가 더 많이 나타나며 유형의 분포가 다양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 본채의 평면유형 지역별 분포

	결합형		분리형		합
안동	75	65%	40	35%	115
봉화	32	65%	17	35%	49
영덕	40	89%	5	11%	45
영양	32	97%	1	3%	33
영주	21	78%	6	22%	27
예천	13	59%	9	41%	22
의성	1	33%	2	67%	3
청송	7	88%	1	12%	8
계	221	73%	81	27%	302

#### 3-2. 안채의 평면 특성

전체적으로 안채의 평면유형은 대칭형이 73%, 비대칭형이 27%의 비율로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영남지역 민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안채의 유형은 비대칭형이다. 하지만 대부분 조사지역의 □자형 뜰집에서 대칭형이 비대칭형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이 분포한다는 것은 특징적인 것이다. 지역별 안채 평면유형은 영덕과 영양지역에서 대칭형인 주택의 비율은 90%가 넘는다. 영주지역은 81%, 예천지역은 73%로 나타나고 봉화, 안동은 60% 이상의 주택에서 안채의 유형이 대칭형이다. 지역별 특성은 안동의 동쪽인 영양, 영덕지역이 대칭형인 사례의 비율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안동의 서쪽인 영주지역이 차지하고 청송, 예천지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봉화, 안동지역은 대칭형의 비율이 가장 낮고 비대칭형의 분포비율은 높다. 안채의 유형에서 영덕과 영



## 14 논문

양지역이 일정한 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봉화, 안동지역은 비대칭형의 분포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유형의 분포가 다양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안채 유형의 분포는 [표 5]와 같다.

[표 5] 지역별 안채유형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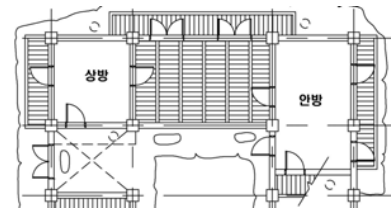
	안동	봉화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	합
대칭형	70	31	42	30	22	16	2	6	219
	61%	63%	93%	94%	81%	73%	67%	75%	73%
비대칭형	45	18	3	3	5	6	1	2	83
	39%	37%	7%	6%	19%	27%	33%	25%	27%

본채의 평면유형에 따라 안채유형을 분석해보면 본채의 결합형 221채 가운데 안채의 대칭형은 164채(75%), 비대칭형은 57채(25%)가 분포한다. 분리형 81채 가운데 대칭형 55채(68%), 비대칭형 26채(32%)가 나타난다. 대칭형은 분리형에서보다 결합형에서 비율이 다소 높으며 비대칭형은 결합형에서보다 분리형에서 비율이 다소 높다. 본채 유형에 따른 안채 평면유형의 분포는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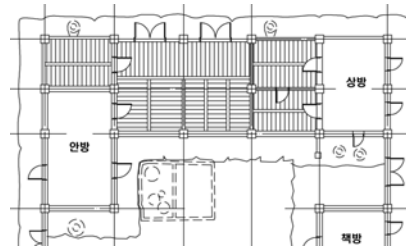
[표 6] 본채 유형에 따른 안채 평면유형 분포

	결합형	분리형	합
대칭형	164 (75%)	55 (68%)	219 (73%)
비대칭형	57 (25%)	26 (32%)	83 (27%)
합	221	81	302

안채 공간 가운데 중요한 구성요소는 안방과 안대청이다. 안방은 생활을 위한 공간이며 안대청은 제례를 비롯한 많은 행례가 이루어지는 의식적인 공간이다. 안방의 위치는 안대청에서 안마당을 바라보는 위치에서 안대청의 좌우로 분석하였다. (그림 2, 3 참조)



<그림 2> 좌측 안방 사례



<그림 3> 우측 안방 사례

[표 7] 안방의 위치 분포

	안동	봉화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	합
우측	78	41	25	19	10	15	2	4	194
좌측	37	8	20	14	17	7	1	4	108
합	68%	84%	56%	58%	37%	68%	67%	50%	64%
좌측	32%	16%	44%	42%	63%	32%	33%	50%	36%

우측에 안방이 배치되는 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4%의 봉화지역이고 다음으로 안동과 예천지역이 68%이다. 영덕, 영양지역이 약 57%내외, 청송이 50%정도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안방의 위치가 우측에 있는 사례가 194채(64%), 좌측에 있는 사례가 108채(36%)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안방이 우측에 위치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동남서녀’<sup>20)</sup> 혹은 ‘남좌우녀’ 관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진다. 지역별 특징으로는 봉화, 안동, 예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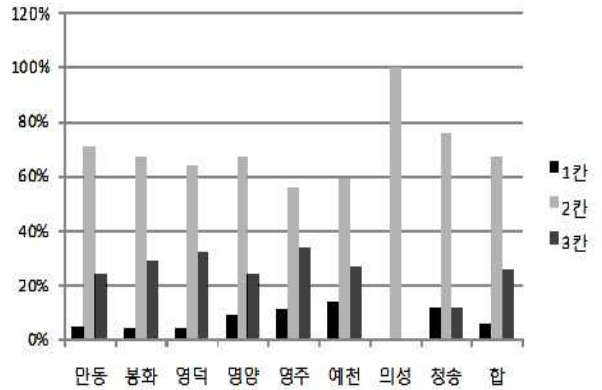
20)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동남서녀의 관념이 뿌리 깊었으며 이는 삼국유사에서 나타나는 여자와 서쪽에 관한 보희와 서악(西岳), 선도성모와 서란산(西鸞山) 등의 설화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에서는 우측에 안방이 배치되는 경향이 강하고 영양, 영덕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방의 위치분포는 [표 7]과 같다.

안대청의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에 안대청의 규모가 2칸인 사례는 대청형에서 64%, 비대청형에서 73%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3칸인 경우는 대청형에서 34%, 비대청형에서 6%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3칸 안대청은 대청형에서 분포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칸의 경우는 비대청형에서 19%, 대청형에서 2% 분포한다. 이것은 비대청형의 구성에서 안방이 안마당을 바라보도록 배치됨으로 인하여 안대청이 작아질 수 밖에 없었고 대청형에서는 안방이 안대청의 측면에 배치되어서 비대청형보다 안대청의 크기에 좀더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형에 따른 지역별 안대청 규모 분포는 [표 8]과 같다.(사례 그림 5, 6,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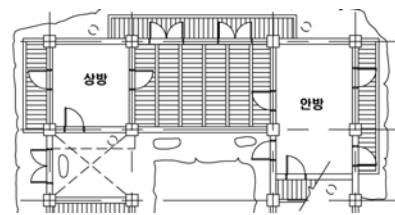
으로 보아 2칸 안대청이 안동문화권 □자형 뜰집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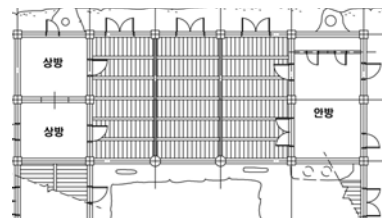
<그림 4> 지역별 안대청의 규모



<그림 5> 안대청이 1칸인 사례 (김화봉 전계서)



<그림 6> 안대청이 2칸인 사례



<그림 7> 안대청이 3칸인 사례

[표 8] 안채 유형별 안대청의 규모

안채 유형	칸수	지역									합
		안동	봉화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	합	
대청형	1			1	1	1			1	4	(2%)
	2	46	18	28	21	12	10	2	4	141	(64%)
	3	24	13	13	8	9	6		1	74	(34%)
비대청형	1	6	2	1	2	2	3			16	(19%)
	2	35	15	1	1	3	3	1	2	61	(73%)
	3	3	1	1						5	(6%)

조사대상 지역에서 유일하게 안동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과 종택의 안대청이 4칸이 가장 크다. 안대청은 2칸(67%)이 가장 많고 다음은 3칸(26%)이다. 1칸(6%) 규모의 안대청도 지역 별로 소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적

안대청 규모의 지역별 특징으로는 영덕, 영주지역에서 3칸 안대청이 30%이상 나타나서 안채의 규모가 큰 주택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고 다음으로 봉화지역이 29%, 안동, 영양, 예천지역이 25% 전후의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예천지역의 경우 1칸인 사례의 비율이 14%로 가장 높다.

조선 중기 이전에는 행례들이 안채의 안대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안채의 규모가 더 커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영덕과 영주지역에서 큰 규모의 안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 지역들의 주택에 안채의 활용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봉화, 안동, 예천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전통이 영주, 영덕지역보다는 약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영주와 영덕 지역의 주택은 변화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었고, 일정한 유형을 지키려는 경향이 다른 지역보다 좀더 강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3-3. 사랑채의 평면 특성**

전체 대상에서 모서리형은 72%(모서리완결형 26%, 모서리돌출형 46%) 분포하고 비모서리형은 28%(전면일자형 13%, 기타형이 15%) 분포한다. 지역별로 모서리형인 사례는 영주지역이 9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양지역 82%, 영덕지역 72%가 나타난다. 안동지역이 69%, 봉화지역이 66%, 예천지역이 68%로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모서리형 가운데 모서리완결형의 분포는 봉화, 영주지역에서 비율이 30% 이상으로 주변지역보다 다소 높은 편이고 영덕, 안동, 예천지역이 다음으로 분포비율이 나타난다. 모서리돌출형의 분포는 영양, 영주지역이 60% 이상, 안동, 영덕, 예천지역이 45% 내외의 분포를 보인다.

비모서리형의 사례는 봉화지역 34%, 예천지

역 32%, 안동지역 31%가 나타난다. 특히 전면일자형의 경우 봉화지역 23%, 안동지역 19%, 예천지역 14%로 그 분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영덕, 영주에서는 한 채도 나타나지 않는다. 영덕지역에서 기타유형이 27%가 나타나나 대부분이 사랑채가 본채 측면에 배치되는 경우로써 이 지역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봉화지역의 특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사랑채의 유형이 골고루 분포한다는 것이다. 사랑채 유형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영양, 영주, 영덕지역에서는 일정한 유형을 지켜지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봉화, 안동, 예천지역에서는 비모서리형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사랑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더 능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의 지역별 평면유형 분포는 [표 9]와 같다.

[표 9] 사랑채의 지역별 평면 유형

		안동	봉화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	합
모서리	모서리완결형	29	16	13	5	8	5	0	2	78
		26%	34%	29%	15%	30%	23%		25%	26%
	모서리돌출형	49	15	20	22	17	10	2	2	137
		43%	32%	44%	67%	63%	45%	67%	25%	46%
계		69%	66%	73%	82%	93%	68%	67%	50%	72%
비모서리형	전면일자형	22	11	0	2	0	3	0	1	39
		19%	23%		6%		14%		13%	13%
	기타	14	5	12	4	2	4	1	3	45
		12%	11%	27%	12%	7%	18%	33%	37%	15%
계		31%	34%	27%	18%	7%	30%	33%	50%	28%
합		114	47	45	33	27	22	3	8	299

또한 본채 유형별 사랑채의 평면유형은 결합형에서는 사랑채 평면유형이 모서리돌출형 49%, 모서리완결형 30%, 기타 13%, 전면일자형 7% 순으로 분포를 보인다. 분리형에서는 모서리돌출형 36%, 전면일자형 29%, 기타 20%, 모서리완결형 15%의 순의 분포이다. 분리형에서 전면일자형의 차지하는 비율이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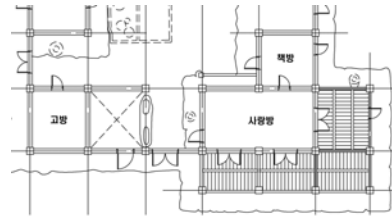
형에서보다 높고 모서리완결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결합형에서보다 적은 것이 특징이다. 결합형에서는 □자 형태를 완결하기가 보다 용이한 모서리형이 분리형에서보다 많이 분포하는 것이고 결합형보다 다소 공간구성이 자유로운 분리형에서는 전면일자형과 기타형의 비율이 결합형에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합형의 본체에 모서리형의 사랑채 구성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채 유형에 따른 사랑채의 평면 유형분포는 [표 10]과 같다.

[표 10] 본채 유형별 사랑채의 평면 유형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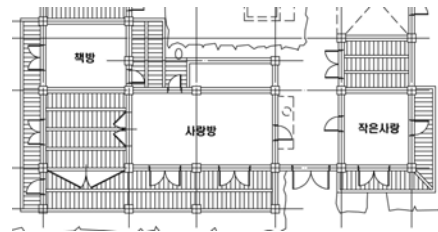
		결합형	분리형	합
모서리	모서리완결형	66 (30%)	12 (15%)	78
	모서리돌출형	108 (49%)	29 (36%)	137
비모서리	전면일자형	16 (7%)	23 (29%)	39
	기타	29 (13%)	16 (20%)	45
합		219	80	299

사랑채의 구성요소는 사랑방, 사랑마루, 부속실(책방, 감실 등)이다. 사랑방은 생활공간이며 동시에 사랑마루와 함께 제례와 같은 공식적인 행례를 위한 역할을 한다. 본채에서 사랑방의 위치는 사랑채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대문을 중심으로 좌, 우로 나누었다. 전면일자형의 경우에는 대문이 건물의 측면에 배치되기 때문에 사랑채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 우로 나누었다. (그림 7, 8, 9, 10 참조) 전체적으로는 좌측인 사례가 180채(60%), 우측인 사례가 122채(40%)로 나타난다. 각 지역별로는 봉화지역에서 사랑방이 좌측에 배치되는 사례의 비율이 7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동, 예천이 60%대로 나타난다. 영덕, 영양, 청송지역에서는 좌측과 우측인 사례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영주지역은 우측의 사례가 좌측의 사례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봉화지역이 좌측에 사랑방이 배치되는 경향이 가장 강하고 영덕,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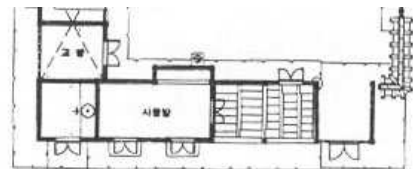
청송지역은 그 경향이 다소 약화되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모서리돌출형 - 좌측 사랑방



<그림 8> 모서리 완결형 - 우측 사랑방



<그림 9> 전면일자형 - 우측 사랑방 (김화봉 전계서)



<그림 10> 기타유형 - 좌측 사랑방(김화봉 전계서)

또한 안방과의 배치관계에 있어서 안방과

안마당을 가로질러 대각선으로 대칭되는 쪽에 사랑방이 있는지 아니면 안방과 같은 축(同軸)에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사랑방의 위치는 280채(92%)에서 안마당을 가로질러 안방의 대각선에 대칭이 되는 곳에 배치된다. 각 지역마다 같은 축에 배치되는 경우가 간간히 보이지만 그 수가 아주 미미하며 영덕의 경우 모든 가옥에서 사랑방의 위치는 안방과 대칭인 경우만 나타난다. 사랑방은 임진왜란 전에는 가족이 아닌 외부 손님의 접객공간으로 사용됨<sup>21)</sup>으로 가족공간인 안채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방과 대칭인 위치에 배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중기 이후는 내외법, 종법질서의 확립, 제례 방식의 변화 등으로 주택의 공간에서 남녀공간의 분할이 일어나면서 이와 같은 안방과 대각선 방향의 배치 경향이 더욱 고착되었던 것으로 추측해본다. 이것은 실 배치뿐만 아니라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시선을 차단하는 ‘빈지’(가림벽)를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1 참조)

[표 11] 사랑채와 사랑방의 배치

		안동	봉화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
사랑방 위치	좌측	73	36	25	17	9	15	1	4
	우측	42	13	20	16	18	7	2	4
		63%	73%	56%	52%	33%	68%	33%	50%
안방 관계	대칭	106	44	45	31	24	20	2	8
	동축	9	5		2	3	2	1	

행례와 접객을 위한 공간인 사랑마루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1칸이 137채(59%)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모든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의 분포를 보인다. 2칸이 60채(26%) 분포한다. 3칸인 경우는 3%로 안동, 영덕, 봉화지역에서 나

타나며 사랑대칭이 없는 경우도 지역별로 나타난다.

특히 봉화지역에서는 2칸 사례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고 안동, 예천, 영덕의 경우 2칸, 3칸의 분포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 즉 이 지역들의 사랑대칭의 규모가 큰 주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들 지역에서 비모서리형 즉, 전면일차형과 기타형의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모서리형에서는 대부분 1칸의 사랑대칭이 나타나나 비모서리형에서는 평면 구성이 조금 더 자유로웠기 때문에 큰 규모의 사랑대칭을 만들 수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12 참조)

[표 12] 사랑방의 위치와 사랑대칭칸수

		안동	봉화	영덕	영양	영주	예천	의성	청송	합
사랑대칭칸수	0	6 8%	1 2%	4 12%	7 29%	5 23%	2 11%		3 50%	28 12%
	1	53 66%	19 43%	20 59%	15 63%	16 72%	9 50%	2 67%	3 50%	137 59%
	2	17 21%	24 55%	9 26%	2 8%	1 5%	6 33%	1 33%		60 26%
	3	4 5%		1 3%			1 6%			6 3%

### 3-4. 지역별 특성 종합

본채, 안채, 사랑채의 모든 경우에서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의 유형의 분포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 분포 비율의 수치도 일정하여 공통적으로 많은 것은 70%대, 작은 것은 20%대로 나타난다. 편의상 다수의 분포비율을 보이는 유형을 “주유형”이라 부르고 작은 분포비율을 보이는 유형을 “부유형”이라 부를 때 본채에서 결합형(73%), 안채에서 대칭형(73%), 사랑채에서 모서리형(72%)이 주유형이 된다. (표 13 참조) 또한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러한 주유형이 되는 결합형, 대칭형, 모서리형의

21) 정정남, 「16·17세기 사대부주택의 공간구성과 활용」,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조합이 차지하는 분포비율이 전체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안동지역 뜰집의 형식적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된다. (표 13 참조)

지역적인 분포로 볼 때 주유형과 부유형의 분포 상황이 8개 시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그 분포 비율이 유사한 지역끼리 구분하면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림 11 A, B, C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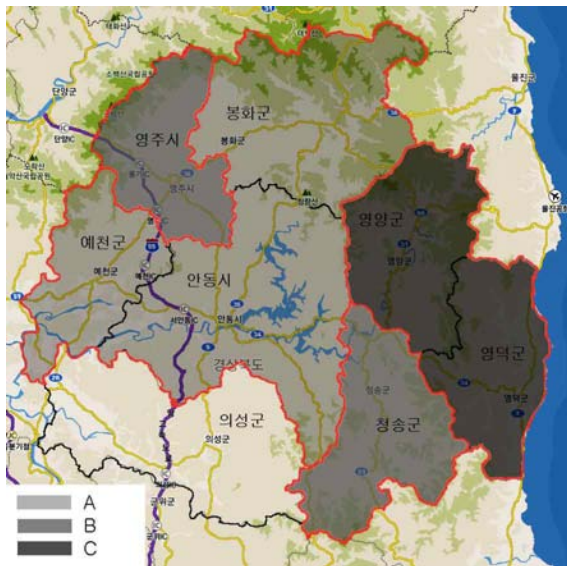
[표 13] 지역별 각 유형의 분포 비율

		안동	봉화	예천	영주	청송	영덕	영양
분포비에 따른 분류		A			B		C	
본채	결합형 75%	65%	65%	59%	78%	88%	89%	97%
	분리형 25%	35%	35%	41%	22%	27%	11%	3%
안채	대칭형 73%	61%	63%	73%	81%	75%	93%	94%
	비대칭형 27%	39%	37%	27%	19%	25%	7%	6%
사랑채	모서리형 72%	69%	66%	68%	93%	50%	73%	82%
	비모서리형 28%	31%	34%	30%	7%	50%	27%	18%

분류하였다. 주유형의 분포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C로 분류하였다. 주유형과 부유형의 분포비율이 A와 C의 중간 정도를 보이는 지역을 묶어 B로 분류하였다. A지역은 안동, 봉화, 예천지역으로 본채는 결합형이 60%대 전반, 안채의 대칭형과 사랑채의 모서리형은 60% 후반의 분포비율이 나타난다. 따라서 A에 해당되는 지역은 유형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다. 예천지역은 안동, 봉화지역보다 주유형의 비율이 다소 적은 편이다. C지역은 영양, 영덕지역으로 본채, 안채는 결합형과 분리형이 90%대의 분포 비율을 보이고 사랑채에서는 모서리형이 70, 80%대의 비율을 보인다. B지역은 영주, 청송지역으로 본채와 안채에서 결합형과 대칭형이 A지역과 C지역의 중간 정도인 70, 80%대의 분포를 보이나 사랑채 모서리형은 영주지역에서 93%로 높은 비율이 나타나고 청송지역에서는 50%로 낮게 나타난다. (표 13 참조)

지리적으로 A, C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로 인접하여 있고 B에 해당하는 영주와 청송지역은 분포비율에서 유사한 특징을 보이나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있다. (그림 11 참조) 따라서 B는 지역적 성격으로 보기보다 통계수치적 중간지역으로 해석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감안하여 청송을 C로, 영주를 A로 분류시키는 지역 분류도 가능하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볼 때 주유형과 부유형 분포비율이 큰 지역과 적은 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A는 유형분포가 다양하고 분산된 경향이 나타나고 C는 유형분포가 집중적이고 단일한 경향이 나타난다.

안채의 유형에서 대칭형은 안대칭의 중심성이 강조되는 유형이고 규모가 큰 안대칭의 비율도 비대칭에서보다 높게 나타난다. 비대칭은 안대칭보다 안방의 실용성이 강조된 유형으로



<그림 11> 유형분포 패턴에 따른 안동문화권 시도의 분류

주유형의 분포비율이 낮고 부유형의 분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A로

안방의 전면이 안마당에 접하여 대칭형보다 실용적인 편이다. 사랑채의 유형에서 비모서리형은 모서리형보다 사랑채의 면적을 증가시키기에 유리하였고 특히 전면일자형의 경우 본채 전면을 차지하여 주택에서 가지는 대표적 상징성이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유형에서는 안채가 강조되었고 부유형에서는 사랑채가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대적으로 조선중기 이전에는 안채가 가족을 위한 생활공간이며 제례와 같은 행례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안채의 중요도가 더 컸었다. 따라서 행례를 위한 공간인 안대청은 면적이 커야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양난이후의 조선중기를 지나 가례, 종법제도, 내외법의 정착으로 인하여 남녀의 생활이 분리되고 사랑채는 남성의 생활뿐만 아니라 남성 위주의 문종의 중심 공간으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랑채의 면적이 커지고 위상이 강조되는 유형이 많아졌을 것이다. 지역별 분포에서 C에서 주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큰 규모의 안대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A에서 부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큰 규모의 사랑대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았을 때 C는 조선중기 이전의 안채의 중요성이 컸던 유형이 지켜지는 경향이 강하고 A는 조선중기 이후의 사회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유형의 분포가 나타나고 사랑채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A와 C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문화적인 영향과 지리적인 영향을 가정하여 보면 사회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문화적 중심 지역인 C와 사회문화의 영향을 적게 받고, 지리적으로 산맥에 의하여 가로막혀

교류가 어려웠던 지역인 A로 나누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2 참조)



<그림 12> 대동여지도상의 안동문화권 도시

안방과 사랑방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분포 비율은 평면 분석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반대로 나타난다. A지역은 안방이 우측에 배치되는 사례와 사랑방이 좌측에 배치되는 사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표 14참조)

[표 14] 지역별 방의 위치와 규모

		안동	봉화	예천	영주	청송	영덕	영양
방 위치	안방우측	68%	84%	68%	37%	50%	56%	58%
	사랑방좌측	63%	73%	68%	33%	50%	56%	52%
규모	안대청 3칸	24%	29%	27%	34%	12%	32%	24%
	사랑마루 2, 3칸	26%	55%	34%	5%		29%	8%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안동문화권의 8개 시군에 분포하는 □자형 뜰집의 평면구성의 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특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안동문화권 8개의 시군에 분포하는 □자형 뜰집 302채의 평면을 본채, 안채, 사랑채로 나누었다. 본채는 안채와 사랑채의 연결방식에 따라서, 안채 및 사랑채

는 평면구성방식에 따라 각각의 유형을 나누었다. 각 유형의 지역별 분석에 의하여 찾아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동문화권 시도의 □자형 뜰집의 본채, 안채, 사랑채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전체적 특징은 본채에서는 결합형, 안채에서는 대칭형, 사랑채에서는 모서리형의 유형이 각각 7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분포비율을 보여준다. (표 16 참조) 이러한 결합형, 대칭형, 모서리형의 사례가 많이 분포하는 것은 안동문화권 □자형 뜰집의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분포비율을 보이는 유형을 주유형이라 부르고 작은 분포비율을 보이는 유형을 부유형이라 부를 때 그 분포 비율이 유사한 지역을 묶어서 분류하면 A, B, C로 나눌 수 있다. A는 주유형의 분포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부유형의 분포비율이 높은 안동, 봉화, 예천지역이 해당된다. C는 주유형의 비율이 높은 영양, 영덕지역이 해당된다. B는 A와 C의 중간 정도의 분포 비율을 보이는 영주, 청송지역이나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지역적 특성보다 통계수치적 중간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유형과 부유형의 분포비율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유형의 분포가 집중적이고 단일한 지역인 C와 분포가 다양하고 분산되어 있는 지역인 A로 나누어진다. A에서는 조선중기 이후의 제례가 사랑채로 옮겨오게 되어 사랑채의 중요성이 커지는 유형의 분포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C에서는 조선중기 이전의 안채의 중요성이 큰 유형의 분포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것은 조선중기를 거치며 나타난 가례, 종법제도, 내외법의 정착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를 지역별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 이유를 정확하

게 설명하는 것은 어려우나 문화와 정치적으로 중심 역할을 한 지역과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교류가 어려웠던 지역으로도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화, 『안동문화권 학술조사보고서』, 성균관대학교 1967
2. 김화봉, 「朝鮮時代 安東文化圈의 ‘뜰집’에 관한 研究」,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3. 윤일이, 「조선시대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4. 정정남, 「16·17세기 사대부주택의 공간 구성과 활용」,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5. 유증선, 「안동문화권 설정의 의의」 『안동문화총서 권一』 안동문화연구소, 1989
6. 임세권, 『역사적 변천, 경북 북부지역의 전통문화』, 경상북도 1988.3
7.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우리 역사문화의 갈래를 찾아서 - 안동문화권』, 역사공간, 2003
8. 정기철, 「17세기 사립의 ‘묘침제’ 인식과 서원영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
9.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상사』, 도서출판 심산문화, 2003
10. 이수건, 「영남사립과 형성의 사회적 기반」, 『민족문화연구총서』 2,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11. 문화재청, 『2005년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조사보고서』, 2005
12. 김길령, 「영남지역 불천위제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 22 논문

13. 김영모, 『조선지배층연구』, 한국문화연구소, 1977

접수(2010. 4. 15)

수정(1차: 2010. 8. 16, 2차: 2010. 9. 1,  
3차: 2010. 9. 8)

게재확정(2010. 9. 8)

# The Regional Characteristic of □ Shape TtulJip Plan around AnDong Cultural Area

Shin, Chi-Hoo

(Doctoral Course, YonSei University)

Kim, Sung-Woo

(Professor, YonSei University)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lanar composition of rectangular formation houses in 8 areas, both cities and counties, in the sphere of Andong an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houses in each region. This study of the rectangular formation of houses and their characteristics will facilitate an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trends of housing in Andong cultural area.

In this study, the subject houses are composed of three parts: Bonchae, Anchae, and Sarangchae, and the author classified the planar types of the houses. The differences in the regional planar types were analyzed through visual and statistical methods. The analyzed results reveal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ctangular formation houses in terms of their planar aspects in the Andong region.

The distribution showed the greatest preference toward one type out of two types of distribution of Bonchae, Anchae, and Sarangchae. The ratio for the higher distribution was approximately 70%, whereas the ratio for the lower distribution was around 20%. For convenience, the type with a higher distribution rate is referred to as the “major type,” and the type with a lower distribution rate is termed the “minor type.” The complete-type houses (73%) in Bonchae were a major type there, and the symmetric-type houses (73%) in Anchae were the major type in that location. In addition, the corner-type houses (72%) in Sarangchae were the major type .

In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ajor types and minor types in the 8 regional cities and counties, regional differences were noted. The three regional groups can be divided into A, B, and C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ratio. Andong, Bonghwa, and Yecheon belong to region A. that shows a variety of distribution types and a dispersive trend. Yeongyang and Yeongdeok belong to region C that shows a simplified trend. Yeongju and Cheongsong belong to region B

---

Keywords : An-Dong Cultural Area, □ Shaped TtulJip, JoSeon Dynasty, Regional Characteristic

---